

社說

POTRA 설립 재고하길

POTRA(포트라)는 Pochon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약칭이다. KOTRA(코트라), 즉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와 동속한 업무를 하는 특수법인체이다.

코트라는 1962년 6월 대한무역진출공사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해외시장개척 및 무역거래의 알선, 국내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각종 박람회 참가 및 전시회 개최, 국내 수출업체에 신속 정확한 해외의 상품정보의 제공, 품목별 수출 증대방안 연구 및 신규 수출 상품 발굴 등을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 수출유망기업관 등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데 코트라와 비슷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포천시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개척이나 무역거래 알선 등을 위해 포트라를 설립한다는 취지는 크게 공감하고 찬성한다.

아울러 포천관내 기업들이 겪고있는 각종 애로사항 등을 돕고자 한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당연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한 각종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적이 없는 무리한 단체 설립은 말리고 싶다. 포천시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포트라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단체는 전국의 6개가 있다. 이들 단체 대부분 경남무역이나 전남무역 혹은 제주교역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설립했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부천무역개발이 유일하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설립한 이들 무역회사는 전북중앙무역

은 이미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산한 상태이며 부천무역개발은 설립취지와는 달리 무역업무를 중단하고 시설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전체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포트라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인 회사의 설명이다.

포트라 설립타당성 용역회사 측은 관계자에게 "회사를 설립하는 데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아느냐, 추진방법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같은 시 관계자들의 주문은 결국 포트라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설립을 강행, 추진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포트라를 설립하고자 했으면 용역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무역회사들을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한 무역회사들의 전철을 따라 간다면 말미암아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포트라를 설립하고자 했으면 용역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무역회사들을 벤치마킹이라도 해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한 무역회사들의 전철을 따라 간다면 말미암아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한 무역회사들의 전철을 따라 간다면 말미암아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포천시-엘리아테크 MOU체결

영북산업단지 예정지내 OLED밸리 유치키로

포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주)엘리아테크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밸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영북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OLED 밸리 조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공동으로 추진하는 OLED밸리는 영북지방산업단지 예정지에 12만1천평 규모로 내년 7월까지 1천억원 투자해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내년 9월부터 3인치 이하 소형제품을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제2차로 2009년까지 1만5천평 규모로 4천억원을 투자해 연매출 1조원 규모의 제2공장을 설립하고 중형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엘리아테크에 기반시설 구축비를 관계법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할 방침이다.

OLED 생산·개발법인(주)엘리아테크는 오는 2009년까지 영북면 야마리 일대 12만평에 모두 5천억원을 들여 OLED 공장, 협력업체, 연구소 등의 시설을 갖춘 OLED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밸리 조성이 완성되는 2009년이면 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엘리아테크 관계자는 "그동안 OLED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2014년까지 추가로 4만평 규모의 제3공장을 건립해 파주 LCD단지



포천시는 지난 12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주)엘리아테크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밸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영북면 지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OLED 밸리 조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년이면 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엘리아테크 관계자는 "그동안 OLED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2014년까지 추가로 4만평 규모의 제3공장을 건립해 파주 LCD단지

년이면 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엘리아테크 관계자는 "그동안 OLED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2014년까지 추가로 4만평 규모의 제3공장을 건립해 파주 LCD단지

년이면 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엘리아테크 관계자는 "그동안 OLED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2014년까지 추가로 4만평 규모의 제3공장을 건립해 파주 LCD단지

년이면 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엘리아테크 관계자는 "그동안 OLED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2014년까지 추가로 4만평 규모의 제3공장을 건립해 파주 LCD단지

년이면 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엘리아테크 관계자는 "그동안 OLED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2014년까지 추가로 4만평 규모의 제3공장을 건립해 파주 LCD단지

년이면 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엘리아테크 관계자는 "그동안 OLED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2014년까지 추가로 4만평 규모의 제3공장을 건립해 파주 LCD단지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수도권 규제는 해악적 행위" "자유민주주의는 투자와 성장 중시하는 것"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16일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초청간담회에서 "노무현 정권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가 파탄의 위기에 빠졌다"며 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규제와 분배가 아니라 투자와 성장을 중시하는 데, 현 정권은 사회주의에서도 하지 않는 잘못된 이념과 정책으로 지역주의와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성장이 있어야 국민들 국가 재대로 유지할 수 있고 성장의 과실을 잘 나누어야만 자유와 통일, 국가의 독립성도 보장된다"며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잘못된 권력에

의한 규제도 경제성장은 멈추고 민주주의는 도태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당선자는 "성장은 투자에서 나오는 데 현 정부 정책은 투자를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당장 기업 규제만 풀어줘도 지금 대기중인 1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당선자는 수도권정비법 폐지와 더불어 현재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대통합론'과 관련, "수도권 과밀집중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이 허구"라며 "수도권에 공장도 대학도 갖지 말라는 것은 흡사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밤에 전기불도 넣지 않고 꺼버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경과 상해, 동경에 맞서 이기는 도시를 만들어 하지 않고 지방에 떨어뜨려 버려 버리는 식으로 규제해 국가가 유혹되고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유일한

길인 투자와 성장을 막는 역사적 난센스이자 지역적인 선동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김 당선자는 이와 함께 팔당 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연천, 고양, 파주 등 북한 접경 지역의 군사안보지역 설정 등을 예로 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나 수도권이기 때문에 낙후지역 선정에서도 빠지는 등 보상이나 배려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행정수도이전 등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역사와 민족의 미래, 그리고 정통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나라의 근원과 맑은 정신을 무너뜨리는 해악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햇볕정책의 정권을 계승한 현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특정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상납식 구걸 지원"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민교 교류와 정부 차원의 교류는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남북경협을 지속할 의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전전공공하면 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정권이 길 포기한 것"이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김 당선자는 대북지원정책으로 화해협력을 추진시키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지원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군사통치의 목적으로 쓰이는지 감동기 어렵고 감정일 정권을 안정시키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16일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초청간담회에서 "노무현 정권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가 파탄의 위기에 빠졌다"며 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규제와 분배가 아니라 투자와 성장을 중시하는 데, 현 정권은 사회주의에서도 하지 않는 잘못된 이념과 정책으로 지역주의와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성장이 있어야 국민들 국가 재대로 유지할 수 있고 성장의 과실을 잘 나누어야만 자유와 통일, 국가의 독립성도 보장된다"며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잘못된 권력에

의한 규제도 경제성장은 멈추고 민주주의는 도태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당선자는 "성장은 투자에서 나오는 데 현 정부 정책은 투자를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당장 기업 규제만 풀어줘도 지금 대기중인 10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당선자는 수도권정비법 폐지와 더불어 현재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대통합론'과 관련, "수도권 과밀집중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이 허구"라며 "수도권에 공장도 대학도 갖지 말라는 것은 흡사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밤에 전기불도 넣지 않고 꺼버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경과 상해, 동경에 맞서 이기는 도시를 만들어 하지 않고 지방에 떨어뜨려 버려 버리는 식으로 규제해 국가가 유혹되고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유일한

길인 투자와 성장을 막는 역사적 난센스이자 지역적인 선동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김 당선자는 이와 함께 팔당 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연천, 고양, 파주 등 북한 접경 지역의 군사안보지역 설정 등을 예로 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나 수도권이기 때문에 낙후지역 선정에서도 빠지는 등 보상이나 배려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행정수도이전 등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역사와 민족의 미래, 그리고 정통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나라의 근원과 맑은 정신을 무너뜨리는 해악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햇볕정책의 정권을 계승한 현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특정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상납식 구걸 지원"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민교 교류와 정부 차원의 교류는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남북경협을 지속할 의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전전공공하면 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이미 정권이 길 포기한 것"이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김 당선자는 대북지원정책으로 화해협력을 추진시키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지원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군사통치의 목적으로 쓰이는지 감동기 어렵고 감정일 정권을 안정시키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2대 포천시의회 마지막 임시대 개회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추경예산과 조례처리 제3대 시의회 7월10일 개원 의장 부의장 선출

포천시의회 제25회 임시회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는 제2대 포천시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서 22일과 23일 이틀간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도시위원회 등 상임

위원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와 조례 등 안건을 심의한다.

또 26일과 27일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계속한다. 28일은 본회의를 개최하고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고 제2대 포천시의회의 막을 내리게 된다.

새로 선출된 포천시의원들은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시의회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 및 집행부 업무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forme66@paran.com



영북면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산정호수의 명상산 등산로 주변에 대해 지난 16일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깨끗한 산정호수로 오세요 산정호수 명상산 등산로 청소실시

영북면(면장 배상택)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이하여 포천시의 대표적 관광지 산정호수의 명상산 등산로 주변에 대해 지난 16일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국토대청결운동은 영북의용소방대, 바르게 살기 협의회, 산정호수 관광지부 9개 민간단체와 군정병 80여명 등 약 250여명이 산정호수주변과 명상산 등산로에서 쓰레기줍기를 했다. 영북면은 주민들에게 쓰레기 안버리기 등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 지부장 hsd5333@hanmail.net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16일 한국인터넷언론협회 초청간담회에서 "노무현 정권은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가 파탄의 위기에 빠졌다"며 노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on Shinmu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pricing.

Large advertisement for Pochon Shinmun, featuring the slogan '포천신문은 전국 최고의 지역신문' and a detailed list of subscription rates for various periods.